



예술가로 살아가기

사론 라우든 엮음

뉴욕 예술가 40인의 밥벌이 방식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술가들의 한결같은 물음이다. 지난 6월 말 두 명의 배우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011년에는 촉망받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는 씨가 동일한 이유로 숨졌다. 당시 예술가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엔법'을 제정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예술가이자 문화기획자인 사론 라우든이 펴낸 '예술가로 살아가기'는 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살아남은 40인의 생존법을 담고 있다. 일상적인 삶과 창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생업에 뛰어들지만 아무리 바빠도 작업활동을 우선순위에 둔다. 또한 창작을 하기 전에 모든 생각을 잊는 시간을 갖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 집중한다. 책에는 홍보하는 방법, 사교를 위한 방법 등도 수록돼 있다.

<블루베리·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모녀 5세대

이기숙 지음

할머니~손녀... 여성사 100년

한국 근현대 100년을 관통하는 여성들의 삶을 다룬 책이 나왔다. 40년 간 가족, 노인, 여성 등의 주제를 연구했던 이기숙 교수가 펴낸 '모녀 5세대'는 모계5세대를 중심으로 풀어낸 한국여성사다.

한 개인의 생애는 그 시대에서 가능했던 삶의 방식과 조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저자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창을 토대로 한국근현대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책은 1900년대생 외할머니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손녀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끈으로 이어진 여성들과 저자 본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17세에 혼인했던 할머니와 컴퓨터로 공부하는 손녀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오늘날의 역사를 만든 토대이자 내일의 역사로 이어질 토대가 된다.

<산지니·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세기 한국 산업화 견인한 '쌍박일심'

<박정희·박태준>

대한민국의 위대한 만남 박정희와 박태준

이대환 지음



'지음(知音)'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벗을 이르는 말이다. 진나라의 거문고 명인 백아(伯牙)가,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이해해 준 종자기(鍾子期)가 죽은 후, 거문고의 줄을 끊어 버린 데서 유래한 고사다. 더 이상 거문고 소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실감을 절현(絶絃)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 평생을 살면서 '지음(知音)'의 벗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역사에는 몇몇 지음의 관계가 있었다. 조선의 신하인 오성과 함음, 춘추전국시대 관공과 포숙야, 임진왜란을 극복한 유성룡과 이순신은 대표적인 '지음'의 관계다.

지음은 온전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 절대적인 믿음과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전제에서 성립된다. 지지고 힘들 때 지음의 벗을 찾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눈빛만

봐도 마음 깊이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파란의 역사였던 우리의 '권력동네'에는 그런 모델이 없을까.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대한 일을 창조할 뉘 모델이 없을까. 불행히도 '역사의 법칙'은 지도자들을 '피고석'에 앉도록 강제한다. 진영의 논리, 역학관계 등 여러 요인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인간적인 내면과 추구했던 가치를 면밀히 주목하지 않고는 온전한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다. 다행히 '평전'은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인간의 다층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창을 제공한다.

광복 70돌을 맞아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박정희와 박태준의 관계를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영일만 출신 작가 이대환이 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은 두 인물의 신뢰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념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가 상충할 경우에는 끝내 후자를 옹호할 수" 밖에 없다는 말처럼, 저자는 두 사람의 '우정'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저자는 대통령 박정희의 행적을 공칭과삼(功七過三)으로 정리한다. 당연히 공은 경제고, 과는 독재다. 물론 공이 과를 덮을 수도 없고 과가 공을 허물 수도 없지만, 공은 성장하고 있고 과는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 언젠가 이것이 한

국사의 상식이 될 거라는 예상도 빼놓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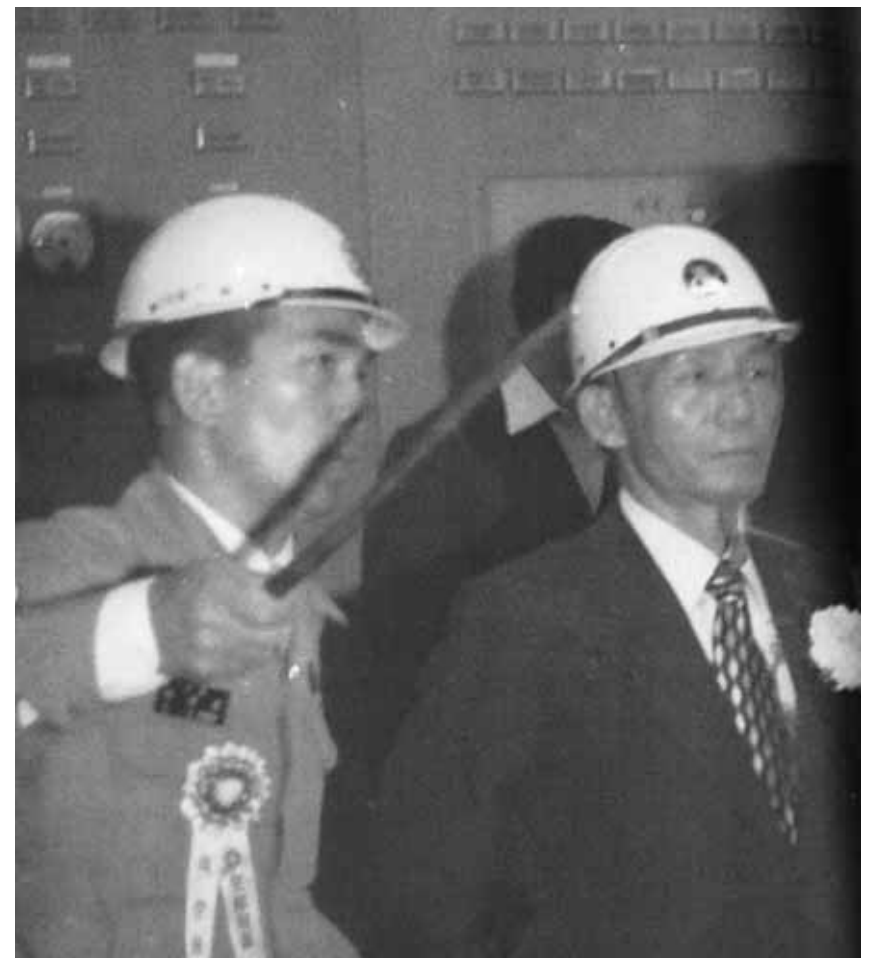
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써어졌다. 저자는 1997년 5월 포항에서 당시 70세였던 박태준을 처음 만나,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2011년 12월까지 거의 매주 한 두 차례씩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15년 이상 매주 만나 속이야기를 했던 두 사람도 '지음'의 관계일 것 같다.) 박태준이 저자에게 "박통 이야기도 참 많이 했는데, 이 선생은 정리해볼 수 있겠소?"라고 던진 질문이 결과적으로 평전이 되었다.

저자는 두 사람이 처음 육사 교관과 생도로 만났던 인연부터, 황무지에 건설한 포항제철 이야기, '철강 2100만 톤 대한민국'을 완성한 1992년 10월 박태준이 박정희 영전에 올린 보고에 이르기까지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비즈니스스쿨은 포스코의 성공 요인으로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와 박태준의 탁월한 리더십"을 언급했다. 강력한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은 다름 아닌 완전한 신뢰위에서 구축된다.

"세계 최고 제철소 건설의 '포스코 25년'을 대하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제1부는 포항제철소이고 제2부는 광양제철소이다. 포항제철소의 기획과 제작은 박정희이고, 연출과 주연은 박태준이다."

박정희의 혜안이 없었다면 포스코의 박태준은 없었고,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완전한 신뢰관계)가 없



박정희(오른쪽)와 박태준 두 사람의 완전한 신뢰관계는 20세기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밑거름이 되었다. <아시아 제공>

었다면 제철혁명의 대하드라마도 완결될 수 없었다.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와 박태준의 만남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두

사람의 '지음'은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완전한 신뢰는 그렇듯 기적을 이룬다. <아시아·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폭력성 원인 유전자·뇌 등 다각도 분석



폭력의 해부

에이드리언 레인 지음

왜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대체로 어린 시절 주거환경,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불합리한 사회제도도 교육제도 등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경험과 영향 탓에 범죄자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도발적인 주장은 1870년대부터 논의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PET, CT 등과 같은 뇌 촬영기술 덕분에 점차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추세다.

신경범죄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수인 에이드리언 레인이 펴낸 '폭력의 해부'는 뇌 영상기술과 신경과학의 연구를 토대로 범죄자를 분석한다. 저자는 유전자, 뇌, 신체표지, 인유학, 진화론 등 다양한 주제를 파고든 결과 반사회적 행동과 폭력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고 봤다. 한 예로 MAOA 유전자는 충동성 통제, 주의력에 관여하

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에 대사작용을 하는데, 이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 충동적인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범죄의 원인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선다. 범죄와 폭력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 각층이 모여 터놓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범죄와 범죄자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흐름출판·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철학의 핵심은 너와 나의 만남



만남의 철학

김상봉·고명섭 지음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의 철학 이야기. 201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섯 차례 40여 시간에 걸쳐 김상봉 교수와 한겨레 고명섭 논설위원의 '철학 대담'을 묶은 책 '만남의 철학'이 출간됐다.

대담자 고명섭은 한 철학자의 정신 세계를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철학'에 몰두하기 시

작해 우리 사회에 주목할 만한 저서를 발표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통시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과연 철학이란 무엇이며 이 땅에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풀어낸다.

김상봉에게 철학이란 "철학적 사유는 자신의 자기반성"이다. 칸트 인식론을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은 그는 그러나 서양적 주체의 자의식이 인격적 관계로서의 만남을 현실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인식론적·사물적 관계의 단계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철학을 전개시켜 나간다. 그의 철학의 핵심이 바로 '만남'인 것이다. <도서출판 길·3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화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이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철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98만㎡만 선착순(중·후 지정)분양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에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폭전주 IC, 임방울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철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상형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도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중·후 지정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철단 양산지구 중상형로얄층 우수환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